

2공항 여론조사 앞두고 정치권 공방 격화

박원철·홍명환 “찬성 당론 채택은 의회·道 합의 파기” 오영희 원내대표 “선출직 공무원 입장 밝힐 의무 있어”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가 '제2공항 건설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도와 의회의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측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맞받아쳤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홍명환(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장이 갈등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진행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는 (당시의) 합의를, 자당

소속 도지사의 발표를 벌써 파기하려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현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도의원이)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은 즉각 논평을 발표해 "이번 여론조사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갈등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진행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문에는 도민 의견 수렴 이전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

는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합의문부터 짐작하게 읽어보라"라고 쏘아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은 도민 사회의 갈등 현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래야 도민들이 선출직 도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 때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같은날 논평을 발표해 민주당 소속 제주 출신 국회의원 3명을 상대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방문 전 코로나 검사면 공영관광지 무료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한 귀성·관광객에 혜택

올해 설 연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미리 받고 제주로 오는 여행객들은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도내 공영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입도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 한해 도내 공영관광지 29곳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때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4일간 14만 3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방문객 수(21만 1848명)보다는 32.5% 감소한 것이지만 한꺼번에 십수만명이 제주를 찾으며 방역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명 중 81.8%에 해당하는 9명이 해외 입국자이거나 수도권 확진자 접촉자, 수도권 방문자 등으로 확인되면서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불안이 커진 상태다. 도는 제주 방문객에게 코로나 사전 진단 검사와 제주안심코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태풍·폭설 등 재난안내 더 빨라진다 도,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업비 21억원을 투입,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통신망 및 전원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신속한 경보발령체계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예산 21억원을 투입해 태풍·호우 등 재해발생 예상 시 긴급 재난 상황 전파가 가능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0개소, 민방위 경보사이렌 6개소, 재난문자 기능개선 등 노후 예·경보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 시 재난방송을 마을단위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해 경보발령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귤 말리기 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음민속마을에서 마을주민이 따온 햇살 아래서 감귤말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道, 비상근무체계

연휴 나흘 동안 하루 평균 381명 공무원 투입 자가격리 불시단속... 적발시 무조건 형사고발

제주도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자가격리자에 대한 밀접 관리를 강화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설 연휴 종합상황실은 행정부지사가 총괄 상황실장으로 ▷종합상황 ▷방역·비상진료 ▷소방·재난 ▷교통·항공·항만 ▷관광상황 ▷생활환경 ▷급수대책 등 7개 반으로 꾸려졌다. 도와 양 행정시 공무원을 포함해 하루 평균 공무원 381명이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근무한다.

종합상황실은 제주형 특별입도 절차 관리를 비롯해 ▷선별진료소(14곳) 운영 ▷입도객 대상 안심코드 이용 안내 홍보 ▷방역수칙 위반 민원 등 우발상황 대처 등에 나선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가족·지인 간 소모임 최소화, 마을 단위 합동 세배 행사 대신 비대면 세배 드리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기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대와 긴급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격리 장소 이탈 방지를 위해 불시 단속에 나선다.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격리 거부자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열린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각 부서별로 마련한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도내 299개 저류지 개선방안 마련 도, 10억원 투입 DB구축·기능개선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저류지에 대한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기능이 미비한 저류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엔 299개소(제주시196·서귀포시103개소)의 저류지가 마련돼 있다. 이는 약 733만t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저류지 현황 자료가 부족해, 일부 저류지에서 비가 올 때마다 우수 유입이 안되는 등 기능상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 운영매뉴얼 부재 등으로 저류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2년 간 총 10억원을 투입해 도내 저류지 통합 DB를 구축, 정밀조사 및 저류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도는 연구를 통해 저류지의 문제점과 기능 개선 방안, 평상시 저류지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종환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제주도에 설치된 저류지의 효과를 분석해 기능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효율적인 저류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2021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공모

서귀포시 8~19일 접수

서귀포시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1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별 400만원(보조율 50~90%) 이내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사업을 신규로 포함시켜 지난해와 차별화를 꾀했다. 신청 대상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권익증진사업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 등 양성평

등문화 조성사업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민생경제 살리기 협력 사업 ▷기타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사업추진을 위한 비대면 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갖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www.seogw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760-2441-2. 강다혜기자

제주 제2공항 찬성

당신의 선택으로 제주의 미래가 바뀝니다.
찬반 여론조사 전화에서 “찬성”에 힘을 실어주세요!

2월 15, 16, 17일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소중한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동산 회장 외

국내여행업분과위원회	국제여행업제1분과위원회	국제여행업제2분과위원회	관광호텔업분과위원회	휴양리조트업분과위원회
일반숙박업분과위원회	전세버스업분과위원회	렌트카업분과위원회	관광지업분과위원회	테마관광지업분과위원회
골프장업분과위원회	관광면세업분과위원회	관광기념품업분과위원회	외식업분과위원회	관광해양레저업분과위원회
힐링체험업분과위원회	승마장업분과위원회	사업지원분과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제주지부

- 2월 15, 16, 17일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소중한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동산 회장 외**
- 국내여행업분과위원회
 - 국제여행업제1분과위원회
 - 국제여행업제2분과위원회
 - 관광호텔업분과위원회
 - 휴양리조트업분과위원회
 - 일반숙박업분과위원회
 - 전세버스업분과위원회
 - 렌트카업분과위원회
 - 관광지업분과위원회
 - 테마관광지업분과위원회
 - 골프장업분과위원회
 - 관광면세업분과위원회
 - 관광기념품업분과위원회
 - 외식업분과위원회
 - 관광해양레저업분과위원회
 - 힐링체험업분과위원회
 - 승마장업분과위원회
 - 사업지원분과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제주지부